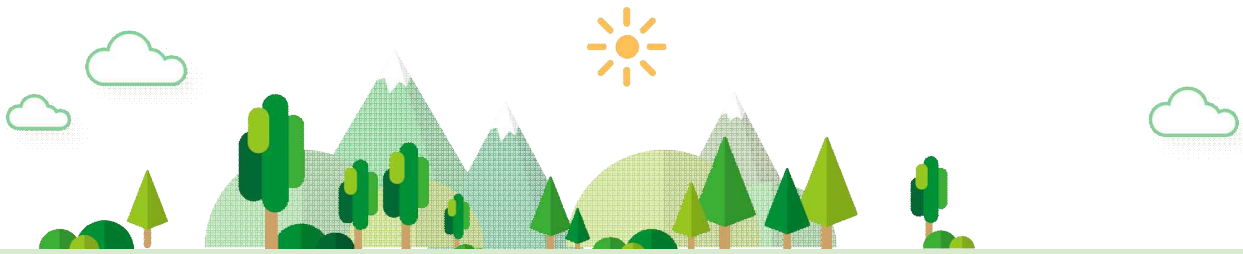


탄소중립

소식지



탄소 정책

- 환경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 방향 발표
- 환경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3)”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 한국기후환경원, ‘대한민국 탄소포럼2024’ 개최

환경 동향

-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 이화여대, 환경·봉사 축제 ‘이화 그린 페스티벌’ 개최
- 탄소중립 실현, ‘CCU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칼럼
-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환경 컨텐츠

- 탄소중립 퀴즈
- 이달의 KEYWORD “지속가능한 미래”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 (정책성과)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환경규제 혁신
△녹색산업 수출 20조 원 시대 본격화
- (추진방향)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 회복
△인공지능(AI),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신속 추진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출·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

(주요 성과)

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여 물그릇을 확대
- 지류·지천 홍수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
-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

②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 혁신 및 지원 확대

* 국제인증(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받은 완제품·모듈설비인 경우 취급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활용

③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22~'23)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 [년신차대수중무공해차비중]('19)2.2%(3.9만대)→('21)6.3%(10.9만대)→('23)9.6%(16.7만대)

** ('21) 676.6 → ('22, 잠정) 652.8(△3.5%) → ('23, 잠정) 624.2백만톤(△4.4%)

- 민관이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

* 건설사·엔지니어링사 59개사, 유관 공기업 10개사, 수출 금융기관 3개사 등

④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 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
-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등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가속화하고 구제 범위를 확대
-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 환경부는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향후 정책 추진방향)

-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25~'28) 구축 추진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규제 적용을 확대
-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
-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 .

(자료: 환경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국민 안전·민생중심 환경정책 혁신,
세계로 나아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그간의 성과

기후위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물그릇 확대



기후대응댐 대체 수자원 보 탄력 운영

하천 안전 관리 강화

국가하천 승격 2024년 승격
2025년 승격



스마트 예보



현장과 기술혁신 기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합리적 규제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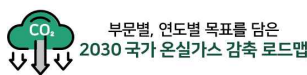


첨단산업 맞춤형 규제혁신



탄소중립 이행 기를 마련, 녹색수출 20조 시대

기후대응 선도 국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녹색산업 수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국립공원 지정



철저한 환경피해 구제



향후 추진 방향

기후위기 적응 강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지역 여건·책임 기반 환경정책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환경규제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환경 규제 적용

지역 활력은 높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 기후위기 대응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의결

-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종합계획은 ①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②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③건강 보호, ④과학적 정책 기반, ⑤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

■ 제6차 계절관리제(’24.12월~’25.3월) 기본체계

(목표) PM-2.5 4,708톤(21%), SOx 34,825톤(41%), NOx 50,374톤(13%), VOCs 22,159톤(7%) 감축

(추진방향)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 생활공간 조성
-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
- 과학 기반의 신속·정확한 예측으로 선제 대응

(주요과제)

-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 석탄발전 가동 축소,사업장 감축 체계화,실시간 감시 및 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 민감·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예측 및 선제 대응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예보 고도화, 한·중 협력 지속, 대국민 참여 유도)

붙임

제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개요

(성격)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 * 「미세먼지법」 제7조

(기간) 2025년~2029년(5년 계획)

비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건강한 국민
목표	'29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mu\text{g}/\text{m}^3$ ※ '21년(18 $\mu\text{g}/\text{m}^3$)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7% 이상 저감

핵심 전략	중점 추진과제
①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사업장 배출총량 축소 및 관리 고도화 ◇ (수송)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 (발전) 석탄화력 감축 및 무탄소 전원 확대 ◇ (농·축산) 농·축산 환경 관리 개선
②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생활공간 주변 대기오염 취약지역 집중 저감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③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저감 강화 ◇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다각화
④ 과학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 ◇ 미세먼지 연구 및 기술개발 ◇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지원
⑤ 실효적 국제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중 협력 내실화 ◇ 국제기구와 아시아 대기개선 협력 ◇ ODA 연계 등을 통한 대기산업 해외진출 지원

(자료: 환경부)

3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 탄소중립 · 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조성

- 국내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경제적 파급효과 59조원 달성
- 무탄소에너지시스템의 기술자립화 실현을 기술자립화율 상향 %p ↑
- 에너지R&D사업 성과 제고로 기술사업화율 제고 10% ↑

■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 4대 전략 · 14대 과제 수립

-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SMR 등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재생에너지의 질서있는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대규모 청정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혁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공급시스템의 무탄소화 촉진
-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통강건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분산자원 계통 수용성 제고를 통한 배전망 유연화, 계통유연성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
 - 초고효율화 및 보급연계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산업 · 건물 부문 열에너지 활용 최적화, 非배터리 수송분야 연료전환
- R&D혁신생태계 조성
 - 에너지R&D 성과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K-ET(Energy Technology)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 에너지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기후환경원, ‘대한민국 탄소포럼2024’ 개최

■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1000여명의 산업계, 학계,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포럼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통합적 접근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입법의 역할을 설명, 특별강연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COP29 총평 및 국제적 전망을 제시

※ 한국기후환경원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를 개최

- 특별대담에서는 정부·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시민단체 분야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

■ 8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미나(배출권거래제, 녹색산업, LCA 등 27개 발표)와 3개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참,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전환, 기후금융, 전과정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

(자료: 한국기후환경원)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 탄소국경세에 대응,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과 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단지로 추진

- 2025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사업 계획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과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
- 협의회에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
-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물량(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

■ 에너지 대 전환 시대,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해상풍력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
- 민간 주도 96M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밝히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 축으로서 해상풍력을 강조

(자료: 경상남도청)

이화여대, 환경·봉사 축제

‘이화 그린 페스티벌’ 개최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나눔 문화 확산 통한 지속가능 지구 만들기에 이화여대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

- 이번 행사는 ‘이화 그린 갤러리·리사이클’, ‘이화 그린 토크콘서트’, ‘이화 그린 파크’, ‘이화 그린 가든’의 4개 테마로 흥미롭게 구성됐다. 재학생 봉사단의 봉사활동 사진전을 비롯해 자원순환 물품 나눔 코너, 토크콘서트, 환경보호 및 봉사활동 체험존, 캠핑존과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 이화여대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참여로 캄보디아 저소득층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의류, 신발, 문구류를 기부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물품 나눔 코너도 마련

■ 이화여대 ‘이화 그린 토크콘서트’ 탄소중립 실천 동참 기회 마련

- 물환경 관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윤여민 교수의 ‘지속 가능한 그린 환경: 미량 및 신종 유해물질이란?’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 후,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새로운 미량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

- ‘이화 그린’ 색상을 테마로 조성된 이화 그린 파크는 환경과 봉사에 관한 지식을 얻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존으로 꾸며졌다. 환경, 도시 농업, 전기차, 식품공학, 건축공학, 기후에너지, 패션, 특수교육, 간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화여대 11개 동아리·전공이 참여해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 학업에 지친 재학생을 위해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진 이화 그린 가든이 조성돼 인증샷 찍기, 지워지는 타투 체험이 마련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장려하는 선물 이벤트

(자료: 팝콘뉴스)

탄소중립 실현, 'CCU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칼럼

2050탄소중립 사회 전환에서 탄소감축 수단은 CCUS

- 산업구조의 그린 대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 2050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유일한 탄소감축 수단은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기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 기술이 2050년 온실가스 감축에 단일 기술로는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 우리나라도 2030년CCUS 감축목표를 11.2백만 톤으로 상향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55.1~84.6백만 톤의 감축안을 제시

※ 우리나라는 그간의 투자를 통해 주요 CCU 원천기술을 확보해 합성가스, 개미산,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중소 규모의 실증을 추진했지만,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낮은 경제성 등으로 기업의 기술도입 유인이 부족해 상용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 CCU 기술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맞춤형 실증연구

- 실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CU 전방산업(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과 후방산업(제품 수요 산업) 연계가 중요하며, 기업의 참여를 실증과정에서통해 CCU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되어야 할 것
- 주력 산업 중 발전과 석유화학산업이 모여있는 서부권, 정유화학산업이 밀집한 남부권, 철강산업이 주축인 동남권과 시멘트산업 기반의 중부권을 대상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CCU 대형 실증사업을 성공함으로써 기술의 경제성과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우리의 산업을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자료:헤럴드경제)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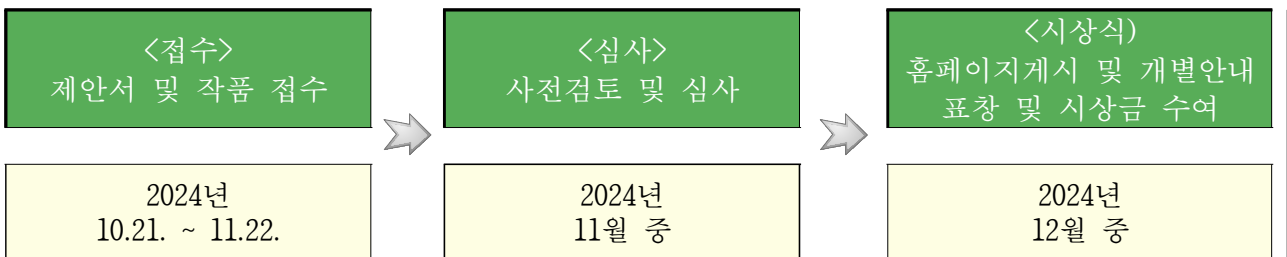
■ 수원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모명) 수원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 (제안접수) 24.10.21(월) ~ 24.11.22(금) [33일간]
- (공모자격) 수원시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목적) 시민의 일상이 되는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확보
- (공모분야) 동영상(론포름,숏폼(또는 글(아래한글서식))

■ 공모주제: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및 실천 활성화

- ①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 ② 수원시 탄소중립 자유주제 동영상(론포름 또는 숏폼)

- (공모일정)



※ 접수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진행일정, 시상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구글폼 제출
(이메일)hcha3922@suwon.re.kr/(구글폼) <https://forms.gle/P5G54VFuSP7N4qJRA>
- (문의사항)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031-220-8076)

(자료: 수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



붙임

수원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탄소중립 도시
지극다운 수원



수원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 2024. 10. 21.(월) ~ 11. 22.(금)

공모자격 수원시 탄소중립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①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② 수원시 탄소중립 자유주제 동영상(동품 또는 솟품)

접수방법 ① 이메일 | 공고문 붙임 서식 작성 제출(hcha3922@suwon.re.kr)
② 구글폼 | 구글폼 접속 후 서식 작성 제출

시 상 금 총 400만원



구글폼 바로가기



구분	부분	최우수	우수			
			적합성	창의성	실현성	효과성
아이디어	건 수	1	2	2	2	2
	시상금	50만원	각 25만원	각 25만원	각 25만원	각 25만원
동영상	건 수	1	2	2	-	-
	시상금	50만원	각 25만원	각 25만원	-	-

※ 제세공과금 발생 시 본인 부담
※ 기준에 부합하는 제안서·작품 제출자에 한해 커피쿠폰 등 지급 예정(예산 한도 내)

접수

제안서 및 작품 접수

10. 21. ~ 11. 22.

심사

사전검토 및 심사

11월 중

시상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표창 및 시상금 수여

12월 중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www.suwon.go.kr) 또는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031) 228-8076**



탄소중립 퀴즈

OX 퀴즈

- ① 필리핀 산 바나나가 우리나라 식료품가게에 진열되기까지 약 2,600Km를 이동해 와야 하며, 미국산 오렌지는 약9,600Km를 이동해 와야 한다. 식품의 이동거리가 클수록 수송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환경오염도 발생한다. 식품의 이동거리에 따른 환경적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한다. (O/X)
- ② 이 생물은 땅속을 이동하면서 흙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흙을 위아래로 고루 잘 섞어 준다. 또한 이 생물은 땅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배설하여 분변토라는 부드러운 입자를 만들어 거름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생물은 지렁이 이다. (O/X)

탄소중립 용어

- ① _____(이)란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 방식으로 만드는 수소.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에서 발생한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얻은 추출수소(개질수소)를 통칭한다. 오늘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② _____(이)란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채권의 금리가 일반채권보다 저리(0.1 ~ 0.2%p)로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 정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 퀴즈 정답

O, O

그레이수소(Gray Hydrogen)

그리니엄(Greenium)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달의 KEYWORD

“지속가능한 미래”

■ 지속가능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 현대 생활과 자연 사이의 균형, 재생 가능 에너지, 재활용,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이니셔티브 >

■ 11월 환경관련 Day

- 11월 5일 세계 쓰나미 인식의 날 (World Tsunami Awareness Day, UN지정)
- 11월 5일 세계전쟁과 무역분쟁 중의 환경파괴 방지의 날
- 11월 6일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 국제 예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Armed Conflict, UN지정)
- 11월 26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Buy Nothing Day)

※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폐기하기까지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고갈등을 고발하고 유행과 쇼핑에 중독된 현대인의 생활 및 소비습관을 반성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소비지구’를 향해 ‘STOP!’이라고 외쳐보세요.

(자료: 기후변화교육센터)